

## 칠레 통신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 1. 개요

#### □ 중남미 최고 수준의 인프라 보유

- 칠레의 통신산업은 높은 경제성장률,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연 평균 9% 이상 성장하는 등 국내 산업 분야 중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칠레는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중남미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2010년 기준 브로드밴드<sup>1)</sup>(broadband) 보급률 2위, 인터넷 보급률 5위, 이동통신전화 보급률 6위를 기록하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정도를 평가하는 E-readness 순위에서는 2010년 세계 30위를 기록하며 중남미 국가 중 1위를 차지함.

<표 1>

**중남미 주요국 정보통신 보급률**  
(2010년 기준)

국 가	종 류	무선통신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인터넷	
		보급률 (%)	역내 순위	보급률 (%)	역내 순위	보급률 (%)	역내 순위	보급률 (%)	역내 순위
칠레		20.4	5	124.0	6	12.5	2	36.0	5
아르헨티나		22.7	2	130.2	4	13.4	1	42.7	2
브라질		21.5	4	103.8	8	6.8	6	40.5	3
멕시코		17.8	6	82.7	11	11.3	3	29.8	7
베네수엘라		24.6	2	96.6	9	8.2	4	36.8	4
콜롬비아		15.6	8	95.4	10	8.1	5	48.8	1
파나마		15.5	9	185.0	1	6.8	6	28.4	9

자료: BMI, *Chile Telecommunications Report*, Q4 2011.

1)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법을 이용해 하나의 전송매체에 여러 개의 데이터 채널을 제공하는 정보통신 용어로 일반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으로 통칭됨.

## □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정책 추진

- 칠레 정부는 1990년대에 통신 산업 자유화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산업 저변을 확대해 나갔으며, 이에 따라 칠레의 통신산업은 자유경쟁 및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중남미 국가 중 정부 개입이 가장 적은 산업 분야로 발돋움함.
- 칠레 통신시장은 1988년 공기업인(Compania de Telecomunicaciones de Chile: CTC)의 민영화를 기점으로 발전하였으며, 독과점 방지 조항, 정부 개입 배제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통신부문 진입장벽을 낮춤.
  - 우호적인 시장환경과 경제호황으로 인한 소득증가로 칠레의 통신시장은 최근 가입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업에 대한 투자가 90% 이상 증가하였음.
- 또한 칠레 정부는 2010년 9월 세계 최초로 네트워크 중립성<sup>2)</sup>(Network Neutrality)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의 무제한적인 공급이 가능해짐.

## □ 적극적인 신기술 도입

- 칠레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와이맥스<sup>3)</sup>(Wimax), 아이피티비(IPTV) 등의 서비스를 도입한 국가로 중남미 지역의 기술혁신 시범국가 역할을 도맡아 함.
- 이와 더불어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4세대 이동통신이라 불리는 LTE<sup>4)</sup> 기술을 도입할 예정임.
  - 2010년 12월 칠레통신청(Subtel)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011년 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통신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전송속도 등을 이용하여 콘텐츠 제공업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으로,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과 KT 등 무선통신사업자가 카카오톡, 스카이프와 같은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콘텐츠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3) 근거리 통신망 기술인 와이파이(Wi-Fi)를 확대 적용한 이동형 무선통신 기술로, 안테나 하나로 48km이내 지역에 광대역 인터넷 제공이 가능함.

4) Long Term Evolution의 약자로, 3세대 이동통신(3G)보다 12배 빠른 속도로 통신할 수 있으며 3G 이동통신 규격인 WCDMA에서 진화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크망과 연동할 수 있어 투자비와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2. 부문별 동향

### 가. 이동통신

#### □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 칠레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00년 초반 3백만 명 수준에서 연평균 20% 증가하며 2011년 3월 말 기준 2천 3십만 명을 기록하고 있음.
  - 2010년 2월 대지진으로 인해 통신 인프라가 타격을 받으면서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임.
- 요금납부 방법 기준으로 선불제(70%)가 후불제(30%)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sup>5)</sup>

#### □ 대형 통신사의 과점 체제

- 이동통신 분야는 대형 통신사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현재 모비스타(Movistar), 엔텔(Entel), 클라로(Claro) 3개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2011년 3월 기준 모비스타가 40.6%를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엔텔(36.7%)과 클라로(22.6%)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칠레 정부는 통신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케이블TV업체인 VTR과 유선통신업체인 넥스텔(Nextel)의 이동통신시장 참여를 허가하였으며, 2011년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
  - 기존 네트워크망이 뒤처지는 VTR은 업계 1위인 모비스타와 로밍계약(Roaming Agreement)를 체결하여 모비스타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5) 중남미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자의 신용조사 과정이 불필요하고 보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선불제 방식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불제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층도 이동통신 사용이 가능해 짐.

<표 2>

### 칠레 이동통신시장 최근 주요 지표

단위: 천 명, %

	2010.3월	2010.6월	2010.9월	2010.12월	2011.3월
가입자수	17,079	17,561	18,310	19,852	20,307
선불제	12,259	12,455	12,930	14,066	14,333
후불제	4,820	5,106	5,380	5,786	5,974
3G이용자수	895	1,078	1,043	1,241	1,433
보급률(100명당)	100.2	102.7	106.9	115.6	118.0

자료: 칠레통신청.

#### □ 스마트폰 사용자 급증

- 이동통신 수단의 빠른 보급과 함께 지난 수 년간의 경기호황으로 인한 소득증가로 고사양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 2011년 3월 기준 3G를 이용한 스마트폰 점유율은 23.7%를 차지하며 2009년 7%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 현재 애플, 삼성, LG, 소니, 노키아 등 세계 굴지의 스마트폰 브랜드가 이미 칠레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중남미 최고 수준의 시장환경을 바탕으로 이들 업체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됨.

#### 나. 유선통신

#### □ 이동통신과 달리 시장 축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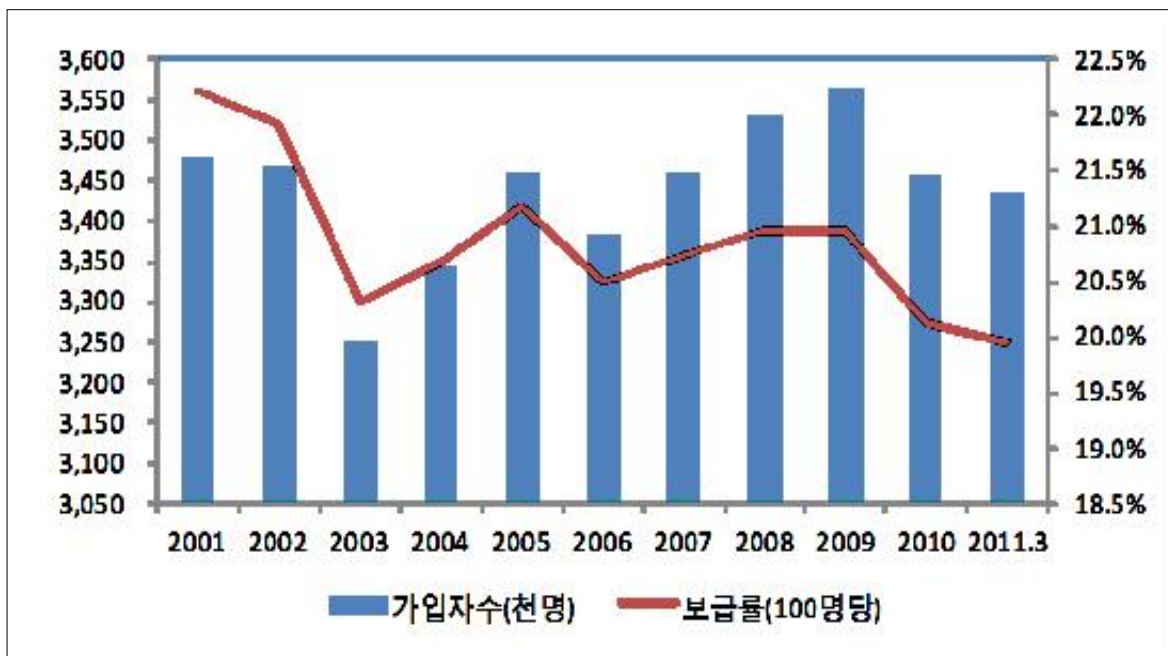
- 유선통신 가입자수는 2011년 3월말 기준 3백 4십만 명으로 200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휴대의 편리성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지닌 이동통신시장의 성장<sup>6)</sup>이 유선통신시장의 상대적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며, 칠레 정부가 향후 성장동력으로 이동통신과 인터넷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임.

6)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프로토콜 음성통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의 성장도 유선통신시장을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칠레 정부는 최근 유선통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2011년 10월 시행을 예정으로 시외전화에도 시내전화와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성장세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유선통신시장에는 현재 총 21개의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업계 1위는 텔레포니카(Telefonica)로 2011년 3월 기준 약 56%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그림 1>

칠레 유선통신시장 추이



자료: <표 2>와 같음.

## 다. 인터넷

### □ 인터넷 시장 꾸준한 성장 지속

- 칠레 인터넷 시장은 5개 업체에 이르는 주요 사업자들의 속도개선노력, 상품 다양화 등으로 인해 매년 두 자리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시장점유율은 텔레포니카가 1위로 42.56%를 점하고 있으며, 그 뒤를 VTR(38.56%), 클라로(7.76%), 텔수르(5.12%), 엔텔(1.14%)이 잇고 있음.

- 칠레통신청에 따르면 총 회선수는 2010년 기준 2006년 대비 67.2%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은 25.1%에서 36.6%로 증가하며 매년 지속적인 시장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지역별 보급률은 가구당 14.8%에서 61.9%까지 편차가 심해 지역별 통신 인프라 수준 차이는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표 3>

### 칠레 인터넷 회선수 및 보급률

단위: 회선, %

	총 회선수	증가율	보급률(가구당)	증가율
2006	1,087,738	20.1	25.1	18.2
2007	1,331,919	22.4	29.7	18.4
2008	1,439,009	8.1	31.0	4.2
2009	1,695,034	16.6	35.3	12.3
2010	1,818,799	7.7	36.6	3.7

자료: <표 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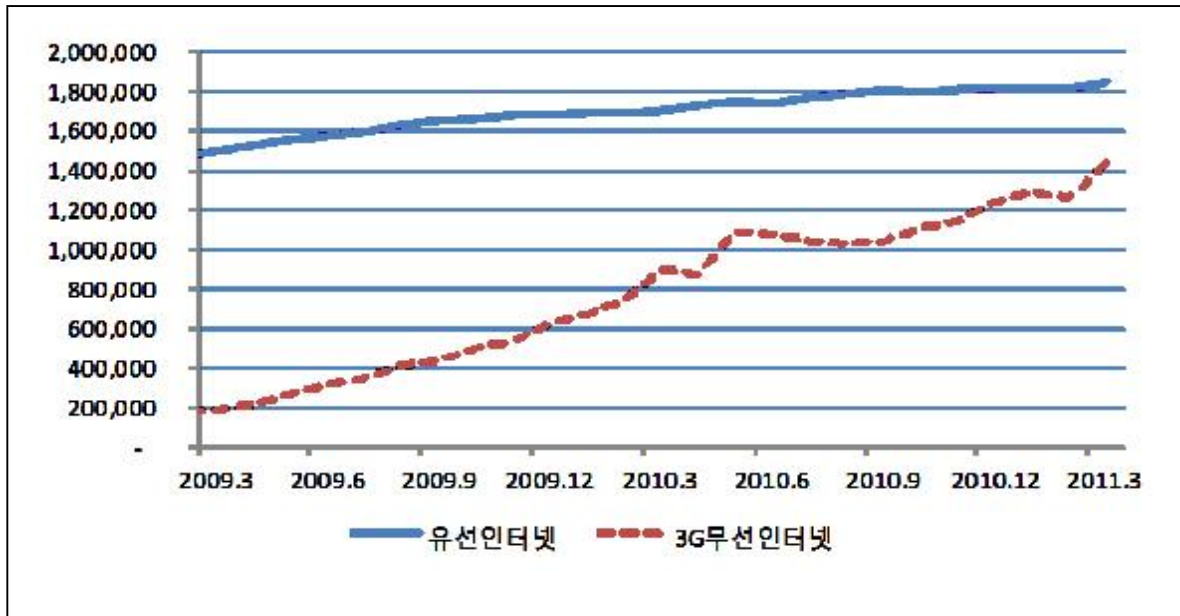
## □ 무선인터넷 성장 가속화

- 3G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선인터넷은 2009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2011년 3월 현재 43.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2009년 초 10%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임.
- 2003년 처음 도입된 와이파이(Wi-Fi) 기지국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현재 호텔, 공항, 카페 등 공공장소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무선인터넷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고객의 수요증대를 들 수 있으나, 그 외에도 낙후된 농촌지역에 인터넷을 보급하려는 칠레정부의 노력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7)
- 농촌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기존 유선인터넷 확산이 어려운데 반해 와이맥스와 같은 무선통신망은 이들 지역에서 보다 쉽게 인터넷 사용을 가능케 함.

7) 칠레 정부는 2008년 10월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해 '칠레전역 인터넷 보급 프로그램'(Todo Chile Comunicado)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터넷 보급률을 92.2%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그림 2>

## 유선인터넷과 3G무선인터넷 회선수 추이



자료: <표 2>와 같음.

### 3. 전망

#### □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 전망

- 칠레 통신산업은 친시장적인 환경, 높은 경제성장률,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데이터 서비스와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동통신시장에 첨단기술이 지속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sup>8)</sup>
- 또한, 2010년 8월 번호이동성제도(Number Portability)시행이 승인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들의 참여로 가격인하와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시장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8월 입찰을 통해 텔레코디아(Telecordia)가 최초의 번호이동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년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8) BMI는 2015년까지 칠레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137%에 이를 것이며, 3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휴대폰은 전체의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지속

- 광케이블과 와이맥스 등 유무선 인터넷망 설비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LTE, MVNO<sup>9)</sup> 사업권 입찰 등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텔레포니카, 모비스타, 엔텔 등 주요 통신 기업들은 2011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유선통신과 인터넷 시장 업계 1위인 텔레포니카는 7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대부분 브로드밴드 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이동통신 선두업체인 모비스타는 1억 달러 규모의 기술혁신기금 조성을 발표하여, R&D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5억 달러를 투자한 엔텔은 2011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 밝혔으며, 클라로는 국제 음성통신과 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위해 향후 4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국가현대화 추진

- 칠레 정부는 단순히 통신망 보급률 확대를 넘어 교육, 의료, 교통시스템 등 타 분야와의 정보통신 접목을 통한 국가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칠레통신청은 정보통신발전기금(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를 활용하여 통신망 전국화를 추진중이며 2012년까지 1분기까지 총 1,474개 낙후지역에 통신인프라 현대화를 완료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칠레 통신산업은 통신수단의 확대를 넘어서 타 분야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 통신수단을 활용한 지역별, 계층별 균형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조사역 최철영(☎ 02-3779-5720)  
E-mail : cychoi@koreaexim.go.kr

9)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약자로 주파수를 보유한 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칠레정부가 2011년 7월 동 사업을 승인함에 따라 현재 7개의 업체가 사업허가 요청을 한 상태임.